

『칠언율시지구집』의 편찬과 신위의 시학적 지향*

- 옹방강 『칠언율시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田娟(Tian Juan)**

〈차 례〉

- 머리말
- 『칠언율시지구집』의 편찬 경위
- 『칠언율시초』와의 選詩 양상 비교
- 옹방강 시학 주장에 대한 비판적 수용
-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위의 『칠언율시지구집』이란 시선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칠언율시지구집』은 옹방강이 왕사정의 영향을 받아 편찬한 『칠언율시초』를 저본으로 再選한 것이다. 이 시선집의 편찬에는 왕사정·옹방강·신위라는 청·조 양국의 세 대가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이 시선집은 신위가 옹방강의로부터 받은 시학적 영향의 구체적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신위는 1820년에 옹방강의 『칠언율시초』를 접한 이후 『七律彙』를 편찬할 계획을 세웠다. 신위는 『칠율구』에 두보를 비롯한 十家를 수록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十二家, 니중에는 十四家로 수록 계획을 조정하였지만, 결국에는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칠언율시지구집』은 『칠율구』 편찬 구상의 최종 성과물로, 1834년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칠언율시초』와 『칠언율시지구집』의 選詩 양상을 비교하면, 『칠언율시초』는 당대부터 원

*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LU-2250001).

** 중국해양대학교 조교수

대까지 四代の 시인 109명의 칠언율시 767수를 수록하고 있고, 『칠언율시지구집』은 사대의 시인 50명의 칠언율시 293수를 수록하고 있다. 두 시선집은 시기별 수록 양상의 경우, 모두 사대의 작품을 두루 수록하고 있으나 『칠언율시초』와 견주어 볼 때 『칠언율시지구집』은 송 시보다 당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작가의 경우 대략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만 왕안석, 황정건 등 몇몇 작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選詩 양상을 근거로 『칠언율시지구집』에 나타난 신위의 시학적 취향을 살펴본 결과, 우선 四代를 두루 배우되 가장 먼 시대부터 漸進적으로 入唐에 도달하려는 옹방강의 學詩 門徑論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위가 옹방강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까닭은 옹방강의 학시론이 당시 조선 시단의 상황에 부합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그러나 칠언율시 학습 전범으로서 당·송시의 가치 평가에는 옹방강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옹방강 시학과 왕사정 시학에 대한 비판적 수용 및 辨體意識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칠언율시지구집』, 『칠언율시초』, 신위, 옹방강, 왕사정

1. 머리말

神韻說을 제기한 청대 문인 王士禎(1634~1711)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칠언율시는 오언율시보다 두 글자가 더 많을 뿐이지만, 그 어려움은 열 배가 된다. 강한 쇠뇌를 당기는 것에 빗댄다면, 칠분까지는 당겨지지만 십분까지 당겨지는 것은 고금으로 보기 드문 일인 것과 같다.”¹⁾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唐人七律神韻集』을 만들었다. 再傳弟子로 초년에 왕사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翁方綱(1733~1818)은 왕사정의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여 그가 만든 『당인칠율신운집』을 보고자 했으나 접하지 못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옹방강은 같은 취지로 『唐人七律志彙集』을 만들었고, 후에 이를 또 增補하여 『七言律詩鈔』를 만들었다. 연행을 계기로 옹방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申緯(1769~1845)는 옹방강의 『칠언율시초』에 대해 “칠언율시의 去就를 재는 玉尺”²⁾이라 고평하고, 그것을 저본으로

1) 翁方綱, 『唐人七律志彙集』, 「凡例」, “昔王阮亭司空嘗舉吏部公馘之言, 曰: ‘七律較五律多二字耳, 其難什倍. 譬開硬弩, 只到七分, 若到十分滿, 古今亦罕矣.’”

2) 신위, 『당시화의』, 「例言」, “今此七律去就, 又必視『志彙集』爲玉尺”. 금지아, 「申緯 編選 <唐詩畫意> 중의 杜詩, 그 美學的 屬性」,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168쪽 재인용.

칠언율시를 재선정하여 『七言律詩志叢集』을 만들었다. 따라서 신위가 만든 이 칠언율시 시선집은 청·조 양국의 세 대가인 왕사정·옹방강·신위가 찬집에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신위가 옹방강으로부터 받은 시학적 영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의미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신위는 한국 한시를 갈무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우 중요한 시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간 신위 시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양적 축적을 이루었다. 그중에서 옹방강 및 그 주변인물과의 교류,³⁾ 그리고 옹방강으로부터 받은 시학적 영향⁴⁾ 등 옹방강을 둘러싼 논의는 신위 시를 이해하는 쟁점 중 하나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영향의 실상을 충분히 구명해내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고는 신위의 『칠언율시지구집』⁵⁾을 옹방강의 『칠언율시초』와 세밀히 비교함으로써 옹방강의 시론에 대한 신위의 비판적 수용의 실상을 고찰하며 칠언율시 창작과 학습에 대한 신위의 인식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칠언율시지구집』의 편찬 경위

『칠언율시지구집』은 필사본으로 현재 단국대학교 연민문고에 소장되어

-
- 3) 박현규, 「청 翁方綱 소장 蘇軾 『天際烏雲帖』과 조선 申緯 結緣」,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259~280쪽; 박철상, 「紫霞 申緯의 燕行과 翁方綱의 영향」, 『한국한문학연구』 75, 한국한문학회, 2019, 63~98쪽; 임영길, 「紫霞 申緯와 청 문단의 교류 양상 - 1812년 연행 이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6, 대동문화연구원, 2021, 121~148쪽; 이현일, 「紫霞 申緯와 清代 文人들의 交遊 연구(1) - 교류의 종합적 회고와 翁方綱·翁樹崑 부자와의 翰墨緣」,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2022, 243~304쪽.
- 4) 이현일, 「申緯의 『焚餘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32), 한국한문화회, 2003, 125~163쪽; 김갑기, 「紫霞 申緯의 詩學 - 由蘇入杜論과 관련하여 -」, 『한국사상과 문화』 4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7~29쪽; 신일권,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 - 고종적 성향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2013, 5~55쪽; 이은주, 「詩論의 절충과 作詩로의 실천 - 紫霞 申緯의 시론과 시세계 -」, 『한국한시연구』 30, 한국한시학회, 2022, 369~397쪽.
- 5) 현재 이 자료에 대한 연구는 해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철상, 「『칠언율시지구집』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집」,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증본 해제사업단 편, 민속원, 2012, 454~457쪽.

있다. 1책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겉표지에는 ‘七言律詩志彙集 單’이라고 적혀 있다. 唐代부터 元代까지 중국의 저명한 시인 109명의 칠언율시를 수록하고 있다. 첫 면에 ‘大興翁方綱鈔 東陽申緯重選’이라고 명기한 것을 보면, 신위가 옹방강의 시선집을 저본으로 다시 뽑아 엮은 것이 분명하다.⁶⁾ 박철상은 그 저본으로 옹방강의 『당인칠율지구집』을 지목하였으나,⁷⁾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칠언율시초』를 저본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① 일전에 대흥 옹방강이 칠언율시 시선집을 출간하였다. 新城 왕사정의 말을 염두에 두어 만들어진 책이고 또 그 말을 圭臬로 삼고자 하였기에 원제목은 ‘唐人七律志彙集’이라 하였다. 이제부터 칠언율시의 去就는 필시 『지구집』을 옥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詩家の 비결을 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공개하는 격이다.⁸⁾

② 내 스승 覃溪 옹방강 선생은 매번 新城 왕사정의 설을 칠언율시에 관한 圭臬로 여기셨으며, 왕사정의 시선집을 보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고로 이 시선집의 원 제목을 ‘당인칠율지구집’으로 한 것 또한 왕사정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四代에 걸쳐 작가를 가려 뽑아 달고 매운 것, 붉고 흰 것을 융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한 바, 왕사정의 앞선 말에 모조리 국한되지는 않았다.⁹⁾

①은 신위가 편찬한 시선집 『唐詩畫意』의 범례의 일부이며, ②는 출간본 『칠언율시초』의 「附記」의 내용 일부이다. 둘을 대조해 보면, 신위가 ①에서 말한 옹방강의 칠언율시 시선집은 곧 『七言律詩鈔』임이 분명해 보이며, 이는

6) 박철상(2012)은 해제에서 서지사항에 ‘翁方綱 著’라고 표기하였다. 본 논문 뒷부분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 시선집이 옹방강의 『칠언율시초』를 저본으로 다시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작품 선정 양상과 시선집에 드러난 시학적 지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칠언율시 지구집』을 옹방강의 저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박철상(2012), 456쪽.

8) 신위, 『당시화의』, 「例言」, “近日, 大興翁氏七律詩鈔一刻, 推本新城王文簡之說, 以爲圭臬, 故其書原名‘唐人七律志彙集’, 今此七律去就, 又必視『志彙集』爲王尺, 詩家秘鑰公諸同好.” 금지아, 『申緯 編選 <唐詩畫意> 중의 杜詩, 그 美學的 屬性』,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168쪽 재인용.

9) 曹振鏞, 「附記」, 翁方綱 편찬, 『七言律詩鈔』(乾隆四十七年刊本), “吾師覃溪先生每舉新城之論, 以爲七言律詩圭臬, 而以其所選原本不獲見爲憾, 故是選原名‘唐人七律志彙集’, 猶新城之志也. 既而搜擇四代作家, 甘辛丹素, 融液疏通, 亦不盡扣於新城前言矣.”

곧 본고의 연구대상인 『칠언율시지구집』의 저본이 되는 책이다.

박철상이 『칠언율시초』가 아닌 『당인칠언율지구집』을 저본으로 지목한 것은 아마도 ①에서 “원제목은 ‘당인칠언율지구집’이라 하였다”는 구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칠언율시초』와 『당인칠언율지구집』은 엄격히 따지면 같은 책이 아니다. 이 두 책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보자면, 전자는 후자를 저본으로 하여 增選한 것이다. 『당인칠언율지구집』은 옹방강이 1762년에 만든 것으로 6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옹방강의 친필본만 전해지고 있다.¹⁰⁾ 이 책은 唐代 시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6수의 칠언율시를 뽑았다. 이후 그는 이 책을 저본으로 첨삭을 거친 후, 당대부터 원대까지 四代의 시인 109명의 칠언율시 767수가 실린 『칠언율시초』를 만들어서 1782년에 출판하였다.¹¹⁾ 신위의 『칠언율시지구집』의 경우에는 당·송·금·원 四代의 시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자가 대조한 결과, 옹방강의 『칠언율시초』에 수록된 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아울러본다면 『칠언율시지구집』의 저본은 『칠언율시초』임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칠언율시지구집』은 언제 완성한 것일까? 아쉽지만 시선집이 완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다만 관련 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편찬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③ 그 때 내가 손수 『七律彙』를 뽑았는데, 처음에 杜甫, 白居易, 李商隱, 蘇軾, 陸游, 元好問, 虞集, 錢謙益, 王士禎, 翁方綱 등 十家를 가지고 추사 김정희에게 질정을 하니, 추사는 “전점익은 지나치고, 杜牧, 黃庭堅, 朱彝尊은 빼놓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하였다. 내가 詩道에 있어 추사를 독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시 十二家로 바꾸었다.¹²⁾

10) 『唐人七律志彙集』은 현재 중국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자세한 서지사항 및 편찬경위 등에 대해 韓勝, 『清代唐詩選本研究』, 南開大學 박사학위논문, 2005, 67~89쪽을 참조할 수 있다.

11) 필자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은 『蘇齋叢書』에 수록된 1782년 간행본임을 일단 밝혀둔다. 간행본 외에 옹방강의 친필본도 전해지는데, 당·송·금·원 사대의 시인 107명의 칠언율시 766수를 수록하고 있다고 한다. 친필본에 대해 한승(2005), 67쪽을 참조할 수 있다.

12) 申緯, 『警修堂全稿』 冊八, 「臘十九, 兒子命准拜坡有詩, 秋史內翰甚激賞, 餘又和之, 以示秋史, “時餘手選《七律彙》, 始以杜文貞·白文公·李義山·蘇文忠·陸劍南·元道山·虞文靖·錢虞山·王

이 기록은 182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인용한 ①의 출처인 『당시화의』 또한 1820년에 편찬된 것이다. 이 두 기사를 종합해 볼 때, 1820년에 신위가 옹방강의 『칠언율시초』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七律彙』의 편찬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七律彙』에는 처음에 두보를 비롯한 十家를 수록하고자 하였으나 김정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겸익을 빼고 두목, 황정견, 주이준을 추가하여 十二家를 수록하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그렇지만 그 후로 10년이 지나도록 신위는 『七律彙』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④ 複初一集十年畢	복초집 한 권에 십 년을 걸렸으니
餘十三家未易完	나머진 十三家를 마치기가 쉽지 않겠네
六代詞宗眉目選	육대에 걸친 거장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려
七言律彙腑心刊	칠언율시지구를 마음 다하여 펴내고자 하네
傳燈解脫循環際	등불 들고 해탈위해 돌고 돌며
摹畫經營慘憺間	모사하고 경영하며 고심하는 도다
他日詩人奉圭臬	뒷날 시인들이 규율로 삼으리니
黃河于水泰於山	마치 강 중의 황하와 산 중의 태산으리

내가 『칠율구』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왕유, 두보, 백거이, 두목, 이상은, 소식, 황정견, 육유, 왕호문, 우집, 전겸익, 왕사정, 주이준, 옹방강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¹³⁾

④는 1834년에 신위가 “복초재시를 선정하는 일로 십년을 보내고도 아직

文簡·翁北平十家. 質之于秋史, 秋史曰: '虞山則濫矣. 杜樊川·黃文節·朱竹垞, 皆不可闕.' 余於詩道, 篤信秋史, 故再以十二家厘正.” 본 연구에서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어 있는 『경수당전고』를 인용하였음을 밝혀준다.

13) 申緯, 『警修堂全稿』冊二十三, 「余選復初齋詩之役, 已過十年, 迄未告竣, 竹垞進士贈是集原刊合續刻重裝本, 而前闕陸序, 後缺麗笙續刻甲戌至丁丑之作, 此亦未可謂完本也, 但題余小照之什, 宛在續刻中, 差幸掛名其間所可恨者, 題拙畫墨竹詩則竟逸而不見耳, 書此以示竹垞」, “余擬選『七律彙』, 王右丞·杜文貞·白文公·杜樊川·李義山·蘇文忠·黃文節·陸劍南·元遺山·虞文靖·錢牧齋·王文簡·朱竹垞·翁文達.”

것 마치지 못하였다(選復初齋詩之役, 已過十年, 迄未告竣)”는 제목으로 지은 연작 시 중의 마지막 수이다. 시와 주석의 내용을 통해 보면, 우선 신위가 아직 『七律數』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칠율구』에 수록할 작가가 十二家에서 十四家로 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기존에 수록하기로 한 십이가에 왕위와 김정희의 건의로 삭제하려고 했던 전겸익을 다시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십사가로 개정된 『칠율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개정된 『칠율구』가 완성됐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십사가를 수록한 『칠율구』는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0년부터 1834년까지 신위가 『북초재선본』을 만드는 데 거의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과 『칠율구』를 두 번 이야기하면서도 관련성이 높은 『칠언율시지구집』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칠언율시지구집』은 『칠율구』 편찬 구상의 최종 성과물로 봐야 할 것이며, 1834년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유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십사가를 수록하고자 했던 『칠율구』를 완성하지 못한 까닭, 혹은 『七律數』의 수록 대상이 십사가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계획대로 『칠율구』를 완성하기에는 너무나 난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④의 미련에서 말하듯, 신위가 『칠율구』에 거는 기대와 목표가 매우 높았다. 강 중의 황하와 산 중의 태산처럼 후세 시인들이 칠언 율시를 창작할 때 준칙으로 사용되는 권위 있는 시선집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큰 야망을 품은 이상 대충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첫 구에서 탄식하였듯이 용방강의 시를 가려 뽑는 데에만 10년 넘게 걸리게 된 것이다. 전겸익과 왕사정, 주이준 등의 경우에도 많은 작품이 남아 있고 아직 좋은 선집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뛰어난 시를 뽑으려면 역시 이에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여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66세의 고령인 신위에게 필시 매우 힘든 작업이고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칠언율시지구집』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타협한 결과가 아닐까 추측된다.

3. 『칠언율시초』와의 選詩 양상 비교

옹방강의 『칠언율시초』는 총 1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권의 첫 줄에 ‘七言律詩卷第二 盛唐上’의 형식으로 해당 작품의 창작 시기를 표기하고 있다. 권1부터 권8까지는 唐代的 작품으로, 권1은 초당, 권2~3은 성당, 권4~5는 중당, 권6~8은 만당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권9부터 권14까지는 宋代的 작품으로, 북송(권9~권12)과 남송(권13, 권14)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권15과 권16은 金代, 권17과 권18은 元代的 작품을 수록하여, 총 109인의 칠언율시 767수를 실고 있다.

『칠언율시초』를 저본으로 찬집한 신위의 『칠언율시지구집』은 총 50인의 칠언율시 293수를 수록하고 있다.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권1에서는 초당과 성당, 권2에서는 중당과 만당, 권3에서는 북송, 권4에서는 남송·금·원대 시기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賈舍人曾一首初唐’의 형식으로 각 시기의 첫 작가 아래에 시기를 표시하였다. 두 시선집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칠언율시초』와 『칠언율시지구집』의 수록 내용 대조표

時期	作者 및 作品	集計1		集計2		重複率
初唐	賈曾(1,1), 蘇頌(3,3), 張說(1,1), 沈佺期(4,3), 李忠烈(1,0), 孫逖(1,0)	6人	11首	4人	6首	75.0%, 60.0%
盛唐	王維(14,9), 崔顥(2,1), 祖詠(1,0), 李頎(3,3), 崔曙(1,1), 張謂(2,0), 岑參(3,1), 高適(3,1), 杜甫(78,59)	9人	110首	7人	75首	
中唐	劉長卿(4,2), 錢起(3,2), 柳宗元(2,2), 劉禹錫(4,4), 皇甫冉(3,3), 韓翃(4,2), 李嘉佑(1,1), 竇叔向(1,1), 李端(1,0), 朱灣(1,0), 武元衡(3,0), 權德輿(1,0), 楊巨源(3,1), 白居易(47,23), 元稹(3,2)	15人	81首	40人	290首	
晚唐	杜牧(22,15), 李商隱(46,24), 李遠(1,1), 許渾(2,2), 趙嘏(1,1), 溫庭筠(5,5), 李頻(1,0), 韓偓(8,3), 韋莊(1,1), 胡宿(1,0)	10人	88首	11人	44首	
	王安石(42,2), 蘇軾(94,56), 黃庭堅(38,4), 王禹偁(1,0), 楊朴(1), 楊億(1,0), 劉筠(1,0), 刁術(1,0), 錢易(1,0), 晏殊(2), 宋庠(1), 宋祁(1), 歐陽修(2), 梅聖俞(1,0), 張先(2), 郭頎(1,0), 楊蟠(1), 馮山(1,0), 王安國(1,0), 羅適	31人	217首	30人	174首	

北宋	(1,0), 張泰(1,0), 王仲甫(1,0), 劉季孫(1,0), 賈收(1,0), 陳師道(1,0), 洪朋(1,0), 韓駒(1,0), 晁沖之(1,0), 蘇過(6,0), 米芾(8,2)				
南宋	陸游(89,17) , 曾幾(11,0), 陳與義(4,0), 王庭珪(2,0), 葉黯(1,0), 尤袤(1,1), 范成大(3,0), 楊萬里(2,1), 樓鑰(1,0), 曾豐(1,0), 陳傅良(1,0), 劉燾(1,0), 游開(1,0), 真德秀(1,1), 高翥(1,0), 洪諮夔(1,0), 翁定(1,0), 陸壻(1,1), 蕭前(1,0), 杜旆(1,0), 蕭立之(1,0), 陳元鑿(1,0), 黃深源(1,0), 梁棟(1,0), 黃誠性(1,0)	25人 130首	56人 347首	5人 21首	16人 95首 28.6%, 27.3%
金	李汾(15,0), 趙秉交(3,0), 劉迎(3,0), 趙溥(2,0), 劉昂霄(1,0), 史學(1,0), 元好問(30,10)	7人55首		1人10首	14.3%, 18.2%
元	虞集(62,10) , 劉因(1,0), 郝經(1), 趙孟俯(6), 宋無(1,0), 王逢(4,0)	6人75首		3人14首	50.0%, 18.7%

위 표에서 ‘작가 및 작품’란의 괄호 안의 숫자는 각기 『칠언율시초』와 『칠언율시지구집』에 실린 해당 작가의 작품수를 표시한 것이다. ‘집계1’은 『칠언율시초』에 대한 통계이고, ‘집계2’는 『칠언율시지구집』에 대한 통계이다. ‘중복율’은 『칠언율시초』에 선정된 작품들이 『칠언율시지구집』에 뽑힌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앞의 수치는 작가의 중복율이고, 뒤의 수치는 작품의 중복율이다. 그리고 기울임체로 진하게 표시한 경우는 『칠언율시초』에서 단독으로 한 권을 차지한 작가들이다. 위 표의 내용을 통해 작품 선정 양상에 있어서 두 시선집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시기별 작품 선정 양상에 대해 일별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옹방강의 『칠언율시초』는 당·송·원·금 4대의 작품을 수록하였고, 신위 역시 『칠언율시지구집』에 수록할 작품을 다시 뽑을 때 사대의 작품을 모두 수록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시기별 수록 양상에 차이가 보인다.

『칠언율시지구집』에는 총 40인의 작품 293수가 수록되어 있다. 당대의 경우, 30명의 작품 174수가 수록되어 있다. 작가 수와 작품 수는 각기 총 수록 수의 75%, 59%를 차지하고 있어 양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송대는 6명의 작품 95수가, 원대는 한 명의 작품 10수가, 금대는 3명의 작품 14수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창작 실재와 시사적 위치로 볼

때, 당시를 더 많이 뽑고 금·원 시기의 작품을 적게 뽑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송대의 수록 상황이다. 唐代 작가와 작품의 중복률이 각기 75.0%, 60.0%에 이르는 것에 비해 송대의 작가, 작품 중복율은 각기 28.6%, 27.3%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징은 『칠언율시초』와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칠언율시초』에서도 당대의 작가와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지만 송대의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수치만 볼 때, 『칠언율시초』에서는 송대 시인 56명의 시 347수를 수록하고 있어 오히려 당대의 것보다 많다. 하지만 『칠언율시초구집』에서는 정반대이다. 신위가 『칠언율시초구집』에 수록할 작품을 선택하면서 당대의 작가와 작품을 많이 뽑은 반면에 송대의 작가와 작품을 대거 삭제한 것이다. 그는 『칠언율시초』에 수록된 북송 작가 31명의 작품 217수 중에서 11인의 74수만 뽑았고, 남송 작가 25명의 작품 130수 중에서 5명의 21수만 뽑았다. 특히 남송의 경우, 원대조차 시인 3명이 뽑힌 상황에서 그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뛰어난 남송에서 불과 5명의 작가를 뽑은 것이다. 각 작가의 수록 작품 수까지 고려하면 신위가 남송에서 중시한 작가는 사실상 육유 한 사람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작가의 수록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위 표에서 기울임체로 진하게 표기한 10명의 작가들은 - 즉 두보, 백거이, 두목, 이상은, 왕안석, 소식, 황정건, 육유, 원호문, 우집은 『칠언율시초』에서 단독으로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중점 수록 작가이다. 선정된 작품의 수를 통해 볼 때, 이들은 대체적으로 『칠언율시초구집』의 중점 수록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두보와 소식의 경우, 『칠언율시초구집』에서 각기 59수와 57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시인들의 작품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수로 『칠언율시초』보다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신위가 시를 선정한 기준이 ‘由蘇入杜’의 주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왕안석, 황정건 등 특정 작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왕안석의 경우, 옹방강의 『칠언율시초』에서는 42수나 수록된 주요 작가로 단독으로 한 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위의 『칠언율시초구집』에서는 2수만

뽑혔을 뿐이다. 또한 당초 신위가 『칠율구』에서 수록하고자 했던 작가를 10가에서 12가로 또 다시 14가로 몇 번이나 조정하였음에도 왕안석을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왕안석의 칠언율시에 대한 신위의 평가가 높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황정견의 경우, 옹방강의 『칠언율시초』에서는 38수가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신위의 『칠언율시지구집』에서는 4수만 뽑혔다. 『칠율구』에서도 김정희가 제안한 이후에야 황정견을 수록 대상에 추가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황정견의 칠언율시에 대한 신위의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황정견과 함께 강서시파의 ‘三宗’으로 일컬어진 陳師道와 陳與義, 그리고 강서시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알려진 洪朋·韓駒·晁沖之·曾幾 등의 시작품이 전부 『칠언율시지구집』에 수록되지 못하였다. 증기의 경우, 『칠언율시초』에서는 11수나 실렸으나 신위는 한 수도 뽑지 않았다. 진사도와 진여의 등 기타 작가의 경우, 비록 많지는 않으나 『칠언율시초』에 몇몇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칠언율시지구집』에는 아예 뽑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강서시파의 칠언율시가 신위에게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옹방강 시학 주장에 대한 비판적 수용

앞장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시선집은 작품 선정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신위가 칠언율시에 대한 옹방강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위 시학에 미친 옹방강의 영향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미적 경향과 학습 방법 등 칠언율시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신위의 인식을 보다 면밀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두 시선집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옹방강의 칠언율시 인식에 대한 신위의 비판적 수용 양상 및 이를 통해 드러난 신위의 칠언율시 인식을 고찰하도록 한다.

1) ‘兼采四代’와 ‘不選明詩’에 대해

두 시선집에서 드러난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兼采四代’, 즉 唐·宋·金·元의 작품을 두루 뽑은 것이다. 四代의 시를 두루 뽑은 것은 옹방강의 學詩門徑論에서 나오는 것으로 신위는 시선집을 편찬하며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는 칠언율시 학습에 대한 신위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우선 옹방강이 당·송·원·금을 작품 선정 범위로 정한 이유를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唐代에 이르러서 한시라는 장르는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거의 완비한 상태에 도달했다. 그 상황에서 송대 시인들은 나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몹시 노력하였고, 또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당시와 송시는 전통 한시의 두 가지 풍격이자 전통이 되었다. “원·명·청 시기에는 재주 있는 자가 많이 출현하였음에도 창작에 있어 당과 송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전종서가 지적하였듯이,¹⁴⁾ 송대 이후에는 당시와 송시에 대한 학습과 극복이란 숙명적 숙제를 안고 가야 했으며, 창작에 있어서 더 이상 획기적인 창신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전후칠자를 비롯한 명대 시인은 학당을 주장하였으나 형식주의적 모의의 폐단을 노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과 극복으로 명말청초의 시인들은 송시에 재주목하여 학습 전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당·송시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논쟁을 통해 당시와 송시가 지닌 특징, 학당과 학송의 장단점 등 당·송시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이 뚜렷이 밝혀졌다. 건륭 연간에 이르러 당시만 배우고자 하거나 송시만 배우고자 하는 것보다는 당·송을 포함한 前代의 전범을 광범위하게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보편적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대의 수많은 작품과 작가를 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옹방강의 생각은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14) 錢鍾書, 『詩分唐宋』, 『談藝錄』(上),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5쪽.

① “어양 선생님은 명대 시인을 거쳐 당에 진입했고, 죽타 선생은 원대 시인으로 부터 송에 진입한 다음에 당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두 선생의 길 중에, 지금 옹당 어느 쪽을 따라야 합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어느 길이 더 좋고 어느 길이 덜 좋다고 논할 수 있겠는가? 다만 죽타 선생의 길은 더욱 온당하고 확실하네.”¹⁵⁾라고 하였다.

② 어양과 죽타 두 선생님께서 시를 논하는 데 매우 정밀하였는데 이몽양의 칠언 율시를 마음속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보가 말하기를 ‘偽體를 선별해서 가려내야 하며 여러 선생을 두는 것이 이롭다’고 하였다. 내가 이 『칠언율시초』에서 명시를 뽑지 않은 것은 이 까닭이다.¹⁶⁾

①에서 어양 왕사정과 죽타 주이준이 구축한 學詩 과정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나는 질문에 옹방강은 주이준의 주장이 더욱 온당하고 확실하다[穩實]고 하였다. 이 말을 통해 우선 옹방강이 入唐을 위해 가까운 시대에서 점차 거슬러 올라가는 학습 방법을 바람직하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그가 『칠언율시초』에서 사대의 시를 두루 취한 것과 의도가 일치하며, 『칠언율시초』에서 단독으로 한 권을 차지한 시인들은 학시의 구체적 과정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명시에 대한 옹방강의 태도이다. ‘명을 통해 당에 들어간다’는 왕사정의 학시 과정에 옹방강이 찬성하지 않은 것은 그가 『칠언율시초』에서 4대의 시를 뽑으면서도 명대의 시를 뽑지 않은 행동과 일치한다. 그 까닭은 그가 ②에서 설명하였듯, 대개 이몽양을 비롯한 명대 복고파의 殘存 영향력에 대한 경계로 귀결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兼采四代’와 ‘不選明代’로 요약되는 『칠언율시초』의 작품 선정이 옹방강의 학시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위는 이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옹방강의 학시론을

15) 翁方綱, 『石洲詩話』 권4, “漁洋先生則超明人而入唐者也, 竹垞先生則由元人而入宋而入唐者也. 然則二先生之路, 今當奚從? 曰: 吾敢議其甲乙耶? 然而由竹垞之路爲隱實耳.”

16) 翁方綱, 『七言律詩鈔』, 「凡例」, “以漁洋·朱垞二先生論詩之精, 而不能不心服李空同七律. 杜陵云: ‘別裁偽體, 轉益多師.’ 愚此鈔置明詩不論者, 以此.”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入杜由蘓幸不絕	두보 진입하기 위해 소식 거치는 것 그치지 않아
裕之傳到伯生完	원호문에서 우집까지 가야 끝나네
大興老手勤鎔鑄	대흥은 노련한 솜씨로 부지런히 주조하여
宗境浮華盡剔刊	실경 이루도록 부화함을 모조리 덜어냈네
頓悟面論琴指後	만나 뵈고 가르침 받은 후 깨달았는데
一生心折瓣香間	평생토록 우러르며 스승으로 모시네
爲公耿耿千秋業	공의 빛나는 천추의 업을 본존하기 위해
選本家藏副在山	정본은 집에 부본을 산에 간직하겠네 ¹⁷⁾

위의 시는 신위가 『복초재선본』의 초고를 완성할 즈음에 지은 것이다. 수련을 보면 옹방강의 학시론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경련에서 그가 옹방강의 학시론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신위가 『칠언율시지구집』에서 ‘검채시대’한 것과 『칠율구』의 수록 계획을 몇 번이나 바꾸며 당·송·금·원·청의 시인을 골고루 뽑으면서도 끝내 명대 시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따라서 신위는 옹방강의 학시론을 잘 알고 있으면서 『칠언율시지구집』에서 그것을 수용·실천하였다.

이러한 수용은 일차적으로는 옹방강에 대한 개인적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옹방강의 학시론이 당시 조선 시단의 상황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 시단은 건륭 연간의 중국 시단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16세기 중후반부터 ‘唐詩一邊倒’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었고, 17세기말 농암계열 문인에게서 송시에 대한 재주목이 시작되었으며, 後四家 시기에는 ‘唐宋調和’와 ‘轉益多師’가 이미 폭넓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신위가 살던 시기에 이르러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송시를 조화하고 어떻게 전의

17) 申緯, 『警修堂全稿』, 冊二十三, 「余選復初齋詩之役, 已過十年, 迄未告竣, 竹垞進士贈是集原刊合續刻重裝本, 而前闕陸序, 後缺麗笙續刻甲戌至丁丑之作, 此亦未可謂完本也, 但題余小照之什, 宛在續刻中, 差幸掛名其間所可恨者, 題拙畫墨竹詩則竟逸而不見耳, 書此以示竹垞」, 「其三」.

다사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옹방강의 주장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대두되었고, 이것이 신위가 옹방강의 학시론을 그대로 수용한 근본적 원인이었다.

2) 칠언율시 학습 전범으로서의 당·송시의 가치 판단

신위는 四代를 두루 배우되 가장 먼 시대부터 漸進적으로 숙달하여 入唐에 이르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門徑論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옹방강이 제시한 학습 대상, 즉 『칠언율시초』에서 한 권을 차지하는 중점 수록 작가와 관련해서는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왕안석과 황정견을 학습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왕안석과 황정견은 각기 송시풍¹⁸⁾을 개척하고 완성시킨 인물이다. 옹방강은 『칠언율시초』의 <범례>에서 송대의 詩史를 논하면서 “칠언율시만 논한다면, 반산 왕안석에게서 곧장 일어났다.”¹⁹⁾라고 하였는데, 칠언율시 창작에 있어서 왕안석의 높은 성취, 특히 송대 칠언율시 발전사에 있어서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찬양한 것이다. 또한 그는 왕안석의 시가 한유의 勁峭함과 王禹偁의 質直함을 잘 융합한 것으로 보고 性情과 學問이 하나로 합하였다고 평가하였다.²⁰⁾ 이는 또한 전형적인 송시풍의 특징이자 옹방강이 추구하는 ‘質實’과 일치되는 특징이다. 황정견은 송시풍을 완성시킨 인물이자 송시풍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이다. 실제로 황정견의 시사적 위상을 끌어올

18)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와 ‘송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바, 하나는 연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때의 당시는 당나라 시인의 시, 송시는 송나라 시인의 시가 된다. 다른 하나는 시의 스타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사실상 완전히 분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연, 「조선후기 육유시 수용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6쪽 참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역시 두 가지 뜻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쓰기가 불가능하다. 대신에 반드시 한시 풍격으로서의 의미만을 강조할 때 ‘송시풍’이나 ‘송시형’과 같은 표현을 쓰기로 한다.

19) 옹방강, 『七言律詩鈔』, 「凡例」, “專論七律, 則直從半山起.”

20) 옹방강, 『古詩選』 권8, 嘉慶11年刊本, “宋詩從西昆入手, 惟一王元之步入清路. 而其氣力尚不足以舉之, 歐陽公雖出自昌黎, 特以風度蔚爲大雅之作, 而昌黎實際必得介甫於中一線穿出, 方能發揮盡致. 此則性情與學問合爲一事矣. 雖介甫性情偏執, 而其文之清真透骨, 於肌理貼緊處自生肉采. 是則此間所必問之津也. 韓之勁峭與王仲初之質直合而成一半山也, 此亦肉必冒骨之理.”

린 데 있어서 宗宋派로 분류된 옹방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황정견의 훌륭한 '質實'에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황정견을 두보·한유·소식과 함께 학시 전범의 계보에 포함시켰다.²¹⁾ 다시 말해, 왕안석과 황정견은 송시풍적 특징을 잘 체현했고, 이 때문에 송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긍정적인 옹방강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칠언율시초』에 칠언율시 학습의 전범으로서 중점적으로 수록된 것이다. 그러나 신위가 『칠언율시초』를 다시 뽑으면서 두 사람의 시를 대거 삭제하여 수록하지 않은 것도 두 사람의 시에 드러나는 강렬한 송시풍적 특징 때문이다. 또한 황정견을 '三宗' 중 한 명으로 삼는 강서시파의 시를 한 수도 뽑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옹방강과 마찬가지로 신위 역시 당·송을 겸하였지만, 『칠언율시지구집』에서 송시보다 당시를 더 중점적으로 수록한 점, 송시에 있어 사실상 소식과 육유만을 취하려던 점, 전형적인 송시풍을 보인 작가를 학습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신위는 옹방강과 비교하여 칠언율시 학습 전범으로서의 송시, 특히 전형적 송시풍적 송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우선 '虛'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된다. 옹방강은 왕사정의 재전제자로 초년에 왕사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후에 왕사정의 신운설이 노정한 폐단의 반성과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자신만의 시론을 완성하였다. 신운설의 가장 큰 폐단은 '虛'에 있다. 당시의 좋은 점은 '허'에 있고, 송시의 좋은 점은 '實'에 있다고 생각한 옹방강은 '肌理說'을 제기하며 송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천명·제창하면서 학문을 통해 '허'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로 나아가는 해결책과 지향점을 제시하였다.²²⁾ 신위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신위는 초년에 당시를 배웠고, 창작 경향과 선천적 기질이 왕사정과 비슷했다. 뿐만 아니라 왕사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²³⁾ 따라

21) 蔣寅, 「翁方綱宋詩批評의歷史意義」, 『中國詩學研究』 2018年 第1輯, 93~104쪽.

22) 이 점에 대해, 唐芸芸, 『翁方綱詩學研究』, 中國社會科學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11, 77~78쪽 참조.

23) 이은주(2022), 373~375쪽.

서 ‘허’의 문제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신위는 옹방강의 시학적 주장을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면서도 옹방강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神韻論唐恐未臻	신운만으로 당시를 논하는 건 완벽치 않으니
罔聞實事詎知眞	실제를 듣지 않고 어찌 참됨을 알겠는가
王韋韓杜難偏廢	왕유·위응물·한유·두보 누구도 소홀할 수 없는 건
共是開門合轍人	모두 저절로 법도에 부합한 인물이라서네 ²⁴⁾

제3구에서 언급한 ‘王 - 韋 - 韓 - 杜’의 계보는 당대의 시인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시의 전범을 엿볼 수 있다. ‘왕 - 위’, 즉 왕유와 위응물은 왕사정이 학습의 전범으로 핵심적으로 거론한 인물이다. ‘한 - 두’, 즉 한유와 두보는 ‘실’을 지향한 옹방강의 ‘한유 - 두보 - 소식 - 황정건’이란 학시 전범의 계보에도 속한다. 신위가 ‘王 - 韋 - 韓 - 杜’ 중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모두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왕사정과 옹방강의 시적 심미 경향과 학시론을 종합한 것이다. ‘실’을 지향한 종송과 옹방강의 학시 경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허’와 ‘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옹방강과 신위의 차이점은 辨體意識과도 관계된다. 여기서 변체의식이란 각 시체의 특징을 잘 분별해내고 파악한 다음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큰 틀에서 볼 때 신위가 옹방강과 왕사정의 시학관을 접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실천 단계에서는 시체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칠언율시지구집』에서 보여준 학시 전범으로서의 당·송 시에 대한 신위의 판단은 반드시 ‘칠언율시’라는 조건 하에서 내린 판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위는 다작을 하는 시인으로서 다양한 시체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가 가장

24) 申緯, 『警修堂全藁』 冊十五, 「奉睿旨選全唐近體詠, 恭題卷後應令作八首」.

좋아하고 중시하며 또 가장 큰 성취를 이룬 것은 칠언율시이다. 이현일은 신위의 칠언율시의 특징을 ‘綺麗美’라고 구명하였다.²⁵⁾ 이는 실제 창작에서도 ‘실’을 지향한 웅방강과는 상이한 특징이며, 창작과 비평에서 보여준 왕사정의 심미적 취향과 흡사하다. 신위와 왕사정은 다음의 세 가지 대목에서도 유사함을 보인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모두 아름다운 말을 좋아하고 즐겨 썼으며,²⁶⁾ 두 번째, 칠언율시에 능하고 당시의 미감을 겸한 육유의 시를 높이 평가하고 배웠으며,²⁷⁾ 세 번째, 모두 왕유를 높이 평가하였다²⁸⁾는 것이다. 요컨대 신위는 웅방강과 왕사정의 시학관을 겸하려고 하였으나, 칠언율시만 놓고 볼 때 왕사정과 더 흡사한 심미 취향과 창작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웅방강의 영향을 받아 ‘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考證을 즐기는 등 학문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신위의 장편 고시 창작에서 포착된다. 칠언율시에 대해 웅방강과 차별되는 심미적 취향을 가진 신위였기에, 『칠언율시지구집』에서 당시에 더 큰 비중을 실었고 왕안석·황정견 등 전형적인 송시풍을 대표하는 시인들은 학습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신위가 왕안석과 황정견을 학습 전범으로 삼지 않은 것은 칠언율시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5) 이현일, 『자하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93~209쪽.

26) 신위는 스스로 ‘綺麗’를 잘 지었다고 했다. (이현일, 앞의 논문, 206쪽 참조) 왕사정은 다른 사람한테서 ‘淸隽之字’를 많이 썼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愛好)’는 비난을 받았다(蔣寅, 『翁方綱對王漁洋詩學的接受與揚棄』, 『北京大學學報』第54卷 第4期, 北京大學, 2017, 118쪽 참조).

27) 翁方綱, 『七言律詩鈔』, 「凡例」, “新城司寇論七律, 于唐則屬右丞東川少陵義山, 于宋則屬放翁.”; 申緯, 『警修堂全藁』冊十八, 「讀宋十家詩, 各題一絕」, “文章入蜀發揮雄, 前有花溪後放翁. 近體鏗能事畢, 更難措手化新功.” 육유의 칠언율시에 대한 신위의 평가는 전연 「정조의 육유 존중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7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232~233쪽을 참고할 수 있다.

28) 전술한 각주 24)의 인용문을 통해 왕사정이 왕유를 숭상하였듯이 신위도 왕유를 배우려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위는 『칠언율시지구집』에서 왕유의 칠언율시를 9수 실었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저본인 『칠언율시초』에서 왕유의 시가 14수밖에 실려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적은 수가 아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신위의 『칠언율시지구집』이란 시선집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칠언율시지구집』은 옹방강이 왕사정의 영향을 받아 편찬한 『칠언율시초』를 저본으로 再選한 것이다. 이 시선집의 편찬에는 신운설을 제기한 왕사정, 기리설을 제기한 옹방강, 그리고 한국 한시를 갈무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신위라는 청·조 양국의 세 대가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이 시선집은 신위가 옹방강의로부터 받은 시학적 영향의 구체적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본론에서는 우선 이 시선집의 편찬 경위를 고찰하였다. 신위는 1820년에 옹방강의 『칠언율시초』를 접한 이후 이를 계기로 『七律叢』의 편찬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신위는 『칠언구』에 두보를 비롯한 十家를 수록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십이 가, 나중에 또 십사 가로 수록 계획을 조정하였지만, 결국에는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칠언율시지구집』은 『칠언구』 편찬 구상의 최종 성과물로 봐야 할 것이며, 1834년 이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칠언율시지구집』과 저본인 『칠언율시초』의 작품 선정 양상을 비교하였는데, 『칠언율시초』는 당대부터 원대까지 四代の 시인 109명의 칠언율시 767수를 수록하고 있고, 『칠언율시지구집』은 사대의 시인 50명의 칠언율시 293수를 수록하고 있다. 두 시선집은 시기별 수록 양상과 주요 작가의 수록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시기별 수록 양상의 경우, 모두 사대의 작품을 두루 수록하고 있으나 『칠언율시초』와 견주어 볼 때 『칠언율시지구집』은 송시보다 당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작가의 경우 『칠언율시초』에서 단독으로 한 권을 차지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칠언율시지구집』에서도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록 양상을 보였지만 왕안석, 황정건 등 몇몇 작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칠언율시지구집』에 강서시파의 시는 거의 수록되지 않은 점도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저본과의 選詩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칠언율시지구집』

에 나타난 신위의 시학적 취향을 고찰하였다. 우선 四代를 두루 배우되 가장 먼 시대부터 漸進적으로 入唐에 도달하려는 옹방강의 學詩 門徑論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위가 옹방강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까닭은 옹방강의 학시론이 당시 조선 시단의 상황에 부합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그러나 칠언율시 학습 전범으로서 당·송시의 가치 평가에는 옹방강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옹방강 시학과 왕사정 시학에 대한 비판적 수용 및 辨體意識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 참고문헌

- 申緯, 『警修堂全藁』
 _____, 『七言律詩志彙集』
 翁方綱, 『唐人七律志彙集』
 _____, 『七言律詩鈔』(乾隆四十七年刊本)
- 금지아, 「申緯 編選 <唐詩畫意> 중의 杜詩, 그 美學的 屬性」,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163-202쪽.
- 김갑기, 「紫霞 申緯의 詩學 - 由蘇入杜論과 관련하여 -」, 『한국사상과 문화』 4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7-29쪽.
- 박철상, 「칠언율시지구집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민구 <동장귀중본> 해제집』, 단국대 소장 연민민구 동장귀중본 해제사업단 편, 민속원, 2012, 454-457쪽.
- _____, 「紫霞 申緯의 燕行과 翁方綱의 영향」, 『한국한문학회』 75, 한국한문학회, 2019, 63-98쪽.
- 박현규, 「청 翁方綱 소장 蘇軾 『天際烏雲帖』과 조선 申緯 結緣」,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259-280쪽.
- 신일권, 「신위의 청나라 연행 이후에 나타난 시의 특징 - 고증적 성향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화회, 2013, 5-55쪽.
- 이은주, 「詩論의 절충과 作詩로의 실천 - 紫霞 申緯의 시론과 시세계 -」, 『한국한시연구』 30, 한국한시학회, 2022, 369-397쪽.
- 이현일, 「申緯의 『焚餘錄』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32), 한국한문학회, 2003, 125-163쪽.
 _____, 『자하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紫霞 申緯와 清代 文人들의 交遊 연구(1) - 교유의 종합적 회고와 翁方綱·翁樹崑 부자와의 翰墨緣」,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2022, 243-304쪽.
- 임영길, 「紫霞 申緯와 청 문단의 교유 양상 - 1812년 연행 이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6, 대동문화연구원, 2021, 121-148쪽.
- 전연, 「정조의 육유 존중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76, 민족문화연구원, 2017, 209-240쪽.
- 韓勝, 『清代唐詩選本研究』,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 蔣寅, 「翁方綱宋詩批評의 歷史意義」, 『中國詩學研究』 2018年 第1輯, 93-104쪽.
 _____, 「翁方綱對王漁洋詩學的接受與揚棄」, 『北京大學學報』 第54卷 第4期, 北京大學, 2017, 115-126쪽.
 唐芸芸, 『翁方綱詩學研究』, 中國社會科學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11.

Textual Research on the *Collec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by Shin Wi

- Focusing on the Sublation of Weng Fanggang's Poetic Claims -

Tian Juan*

The *Perfect Collec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is an anthology of poems and essays re-selected by Shin Wi, a Chosun scholar, based on Weng Fanggang's *Collec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In this paper, the friendship between Shin and Weng and the organization of *Perfect Collec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are studied.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Perfect Collec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and *Collec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e purport of poetry selection and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are revealed, as well as the deep reasons for such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Key words: Shin Wi, Weng Fanggang, *Perfect Collec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Collection of Seven-character Octaves*, seven-character octaves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16일 ||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1일

* Ocean University of China, Assistant Professor